

SCENE 1

번지는 장면 Scenes of a Spreading Crisis

쌓이는 압력과 무너지는 균형 Mounting Pressure and Disrupted Balance

기후위기는 한순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석탄을 캐내고, 숲을 밀어내고,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해 온 시간들이 지구에 서서히 압력으로 쌓여 왔다. 그 압력은 폭우로 잠긴 거리와 말라 갈라진 땅, 불타는 숲과 홍수 뒤의 마을처럼 이미 세계 곳곳의 삶과 생태계를 흔드는 현실이 되고 있다.



검은 폐
Black Lungs

인도 India, 2017
© Rajesh Kumar Singh / Climate Visuals Countdown



플라스틱 호수
Plastic Lake

볼리비아 Bolivia, 2021
© Marcelo Perez del Carpio / Climate Visuals Countdown



뒤집힌 빙산
Flipped Iceberg

웨들해 Weddell Sea
© David Menzel / Climate Visuals



불타는 올리브나무
Burning Olive Trees

그리스 Greece, 2008
© Milos Bicanski / Climate Visuals Countdown

SCENE 2

마주하는 장면 Scenes of Facing Reality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와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 지금 이곳의 현실을 마주하고, 지구의 다음 장면을 함께 생각한다.



① 허어 나우 프로젝트 The Here Now Project

미국 USA | 2024 | 75min

세계 곳곳의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직접 기록한 화재와 홍수, 폭풍의 순간. 동시대 기후재난의 현실과 위기에 맞서는 인간의 회복력, 용기, 공동의 책임을 담은 다큐멘터리

감독

존 시스켈 Jon Siskel · 그레그 제이컵스 Greg Jacobs
사회적 현실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해 온 에미상 수상 다큐멘터리 제작자



② 기후과학자의 특별한 탄소 여정 The Researcher

이탈리아 Italy | 2024 | 71min

비행기 대신 기차와 버스, 여객선과 화물선을 이용해 연구지 파푸아뉴기니를 오간 기후 과학자의 여정.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념이 직업과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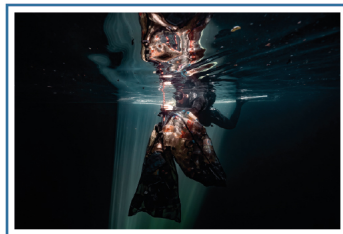
파올로 카살리스 Paolo Casalis
환경과 음식,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꾸준히 기록해 온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감독

SCENE 3

되살리는 장면 Scenes of Renewal

적응과 회복의 움직임 Steps Toward Adaptation and Recovery

물속의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플라스틱을 대신할 재료를 기르며, 태양과 바람, 지열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실천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데서 나아가, 훼손된 환경과 삶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 쓰레기 수거
Marine Garbage Collection

멕시코 Mexico
© Nelly Georgina Quijano Duarte / Climate Visuals



서벵골 농촌의 황마 재배
Jute Farming in Rural West Bengal

인도 India, 2021
© Dipayan Bose / Climate Visuals Countdown



역설적인 에너지
Paradoxical Energy

스리랑카 Sri Lanka, 2021
© Tashiya de Mel / Climate Visuals Countdown



복원된 맹그로브 숲
Restored Mangrove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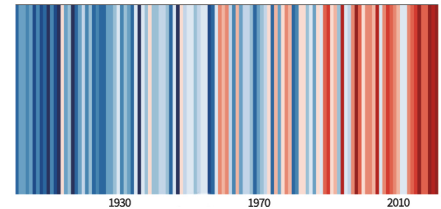
케냐 Kenya, 2021
© Anthony Ochieng / Climate Visuals Countdown

기후위기 × 디자인 Climate Crisis ×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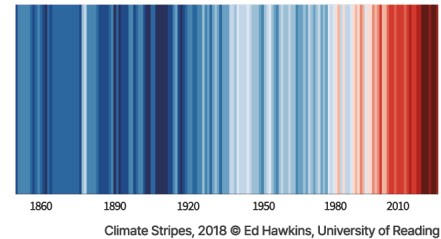
색으로 읽는 온도 Reading Temperature through Color

기후줄무늬(Climate Stripes)는 해마다 달라진 평균기온을 색으로 나타낸 시각화다. 기준보다 낮은 해는 파란색, 높은 해는 붉은색으로 표현해 기온 상승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기후줄무늬: 대한민국(since 1901)



기후줄무늬: 전 세계(185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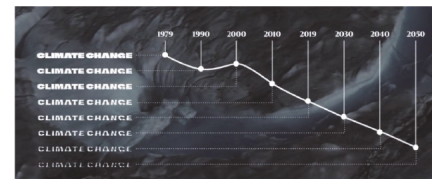
Climate Stripes, 2018 © Ed Hawkins, University of Reading

사라지는 글자로 읽는 시간 Reading Time through a Vanishing Typeface

기후위기 폰트(Climate Crisis Font)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글자의 굵기와 모양으로 시각화하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한 글꼴이다. * 기후위기-한글은 이 개념을 한글의 구조와 조형에 맞게 확장한 글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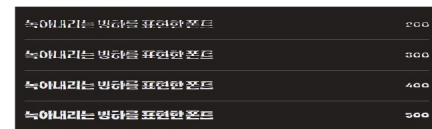
*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의 1979-2019년 북극 해빙 관측 데이터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50년 전망을 기반으로 제작

기후위기 폰트: 영문



Climate Crisis Font, 2019 © Helsingin Sanomat

기후위기 폰트: 한글



기후위기-한글, 2022 © NohType

콘텐츠 협조

